

작가만 있던 대인예술시장, 시민도 함께 합니다



사진작가 이세현씨가 운영하는 '802564'

'땀이 나올 것' 같은 재래시장 빈 점포에 화가들이 물러들더니 알록달록 그림이 그려지고, 시장을 찾는 사람도 늘었다. 광주 대인예술시장 얘기다. 지난 2008년 광주비엔날레와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작가들이 텅 빈 점포의 거미줄을 걷어내고, 자리를 잡았다. 최근 대인시장은 또 다른 성장의 기로에 서 있다. 그동안 작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면, 이제는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인시장에 작가·시민이 함께하는 예술 공방이 생겼다. 대인예술시장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느티나무(총감독 정민룡)은 30일 '항구네' '802564' '아띠살롱' '매화점' 등 문화예술공방 4곳의 문을 연다. 문화예술공방은 작가와 시민들이 함께 작품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느티나무, 문화예술공방 4곳 오픈

극단 '신명'이 운영하는 소극장 '항구네'(운영자 김호준)는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 토론회가 펼쳐지는 사랑방 같은 곳이다. '항구네'는 '함께'의 고향이다. 예술가와 관람객이 벽을 허물고 함께 공연을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과거 노래방이었던 지하 공간을 개조해 무대와 객석의 구분 없이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게 큰 특징이다. 또 입춘, 하지 등 음력 절기에 맞춘 공연을 기획하고 대인시장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장의 기능도 하게 된다.

예술 카페 '802564'는 사진작가 이세현씨가 운영하며, 차와 100여 권의 사진집을 감상할 수 있는 곳

이다. 또 무료로 이세현에게 사진을 배워볼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교육을 받으면 이곳에서 직접 사진 전시회도 열 수 있다. 유명 사진 작가의 전시회와 초보자를 위한 야외 촬영 등 사진 관련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차 마시고 공예품 만들고 사진강좌까지

북아티스트 정성현씨가 운영하는 '아띠살롱'은 세상에서 단 하나 뿐인 책을 손수 만들어 볼 수 있는 곳이다. 또 대인시장 입주 작가들이 만든 다양한 작품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나무공방 '매화점'에서는 한국화가 윤남웅씨의 지도를 받아 문패와 명가방 등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가족과 함께 조각 칼로 문패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 새, 물고기, 인형을 만들어 볼 수 있다.

일반인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나무 절단 등 어려운 공정은 작가가 맡아 진행하고, 참가자들은 나무를 조립하고 색을 칠하기만 하면 된다. 이들 공간은 오는 12월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운영된다.

'문화예술공방'을 진행하고 있는 이남영씨는 "공방이라고 해서 공예품만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함께 어울려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친구집' 같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막식이 열리는 30일 오후 4시 이틀 공방에서는 사물놀이 공연, 북아트·나무공예 체험 등 흥겨운 행사가 결집된다. 문의 062-233-14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국화가 윤남웅씨의 '매화점'

시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서구문화원, 내일 전국 애송시 낭송대회

광주 서구문화원(원장 강만)이 주최하는 '제8회 전국 일반인 애송시 낭송대회'가 오는 7월 1일 오후 1시 서구빛고을 국악전수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부터는 일반부 외에 60세 이상이 참가하는 실버부를 신설해 별도 시상하게 된다. 참가자는 작사시를 제외하고 시 한편을 암송하게 되며 시 선택, 낭송 기교, 태도, 청중반응 등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문화원협회장상과 상금 50만원이 주어지며 금상·은상 각 2명에게 20만원, 10만원 상금과 부상을 동상과 장려상 5명씩에게는 부상을 시상한다. 문의 062-681-4174.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끼' 넘치는 어린이 모여라

극단 토박이가 연극학교 참가자 모집

극단 토박이가 제 19회 신나는 어린이 연극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어린이 연극학교는 발음·발성훈련, 신체 훈련, 상상력 훈련, 오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재미있는 연극놀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연극학교는 오는 7월25일~8월 9일(월~금 오전 9시~10시30분)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민들레 소극장에서 열리며 수강료는 12만원이다.

마지막 날인 8월 9일에는 발표회도 갖는다.

극단 토박이는 1983년 11월에 창단, 광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공연예술단체로 오월극 '금희의 오월', '모란꽃', '청실홍실' 등을 공연했다. 특히 환경노래총곡 '가물치 왕자', '날아라, 나비아!', '홀랑라 아저씨의 오두막'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작품들을 꾸준히 무대에 올려왔다.

문의 062-222-628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 문화정책 진단 평가

市-문화도시협, 오늘 NGO센터서 포럼

민선 5기 1년과 광주시 문화 정책을 진단하는 포럼이 30일 오후 2시 광주NGO센터 대강당에서 열린다.

광주시의회와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은 광주시 문화 정책의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문화도시 광주의 실현 과제와 비전 제시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포럼에는 서순복 조선대 교수와 정인서 시민의소리 이사장 '민선5기 1년, 광주시 문화 정책 성과와 한계, 발전 방안'과 '광주문화재단 현주소, 그리고 미래'라는 내용으로 각각 주제발표한다.

홍인화·전주연(광주시의원), 임영일(광주시 문화수도지원과장), 김영집(광주문화도시협의회 공동대표), 선재규(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실장), 허달용(전광주민예총 회장)씨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종합토론 패널은 정병문(광주시의원), 강왕기(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 이무용(전남대 교수) 등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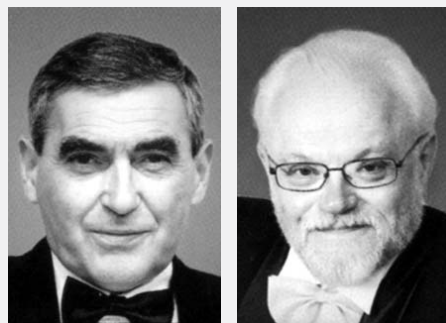
청소년 마음에 사랑과 소망을

내달 2일 'YF 아티스트 콘서트'

(사)국제청소년연합(YF·회장 도기권)은 오는 7월 2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2011 YF월드캠프 기념 청소년 페스티벌'을 기념하는 '2011 YF 아티스트 콘서트'를 연다.

이날 콘서트에는 보리스 아발란(산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이 지휘를 맡고, 첼리스트 드미트리 이리요비(산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와 오보이스트 비토 후스(마린스키 오페라극장 심포니 오케스트라 수석), 피아니스트 이고르 르베드브, 바이올리니스트 오스만노브 칭키즈(하이페츠 국제 콩쿠르 최고 연주자 특별상)가 협연한다. 또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보리스 아발란 이고르 르베드브

연주 레퍼토리는 롯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과 오페라 '돈조반니' 중 '그대의 손을 주오', 푸치니의 '라 보엠' 중 '오 사랑스런 여인이여', 사라사테의 '치고이너버이젠' 등이다.

남도 정경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시립미술관, 8월14일까지 '풍경과 삶'전

그림에 담긴 남도의 자연과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8월 14일까지 남도를 주제로 한 소장품을 선보이는 '남도의 풍경과 삶'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연근·국종호·양수아·오승운·오지호·정선휘·김주성·김준호·배동신·오승우·윤재우·이강하·조규일·조근호·조진호·최영훈씨 등이 지역 서양화가 33명이 참여한다.

광주 근대 회화의 선구자인 오지호의 '목포항' '추경'과 양수아의 '고싸움' 등 명작과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견작가들의 작품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

시립미술관 오병희 학예연구사는 "이들의 작품



오지호 작 '목포항'

은 밝고 맑은 한국의 색채를 중심으로 한 감각적인 화풍으로 풍부한 빛과 자연에 대한 생명력을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문의 062-613-710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대·소모임 가능한 500석 완비!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의 다양한 룸구성으로 쾌적하고 아늑하게 모시겠습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생)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30	25,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3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합니다.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치장 완비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게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